

“超克과 挑戰”

朴英昊

(의전건축연구소)

□ 精神의 結晶体로서의 건축물

건축작품을 평가하는 경우 작품에 나타난 精神面의 優劣을 들어 評價基準을 삼는 경우를 본다.

치졸한 사람과 숭고한 理想의 사람, 타락한 사람과 聰慧한 哲人, 이 상반되는 사람들의 작업 결과에서 어떤 차이점이 있으리라는 예상이 가능하다면 적어도 그런 基準이 근거없는 것만으로 批評받을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게 한다. 中世 基督教建築을 극찬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보면 그러한 점을 쉽게 수긍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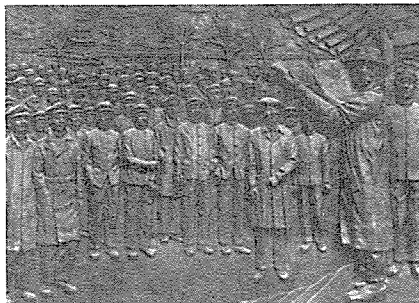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여 생활하던 시절에 教會堂을 짓는 일에 慾氣나 邪心을 앞세울 수 없었던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한 연유로 鎭金을 하는 사람이나 일을 主管하는 사람, 설계나 시공에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이 渾然一體가 됨으로써 結작을 가능하게 하였다는 이야기가 된다. 그들의 숭고한 이상과 念願으로 이루어진 結晶体인 것이기 때문이다. 闘技場이나 淫亂遊興場에 비하여 修道院이나 不具者 福祉施設이 아무리 초라하다 할지라도 그 아름다움을 잃지 않는다. 반면 아유스비츠 受容所와 같은 建物이 실사 아름다우고 적절한 기능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좋게 평가할 수는 없다. 아름답다는 표현조차 '우수한' 이야기가 된다. 不道德한 사람들, 非人間的인 사람들의 기획물이기 때문이다.

自由와 平和를 사랑하는 선량한 많은 사람들의 所望과 念願을 뒷받침하여 태어나려 하는 것은 그것의 의미를 작별히 할 수 있다는 데 일차적 의의를 지니게 된다. 高麗大藏經은 字体의 아름다움과 제작의 정교함, 내용의 정확함이 世界 으뜸이라 한다. 이것은 바로 國難을 이기려는 민족의 한결같은 염원 속에 이루어진 데 그 까닭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獨立紀念館에 보내는 저마다의 聲援으로 봐서 그것이 으뜸이 될 수 있는 소지를 가능하

게 함을 일차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 더하면 더다

돌이켜 생각한다면 온갖 정성을 바치는 것이 중요한 일이긴 하겠지만 거기에 비하여 결과가 좋지 못한 경우도 허다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 <더하면 더다> (或益之而損...)라는 老子의 警句를 새삼스럽게 한다. 모든 것은 언제나 줄이려고 하면 불어 나고 더해 주려고 하면 도리어 줄어 든다는 말이다. 바꾸어 말한다면 잘하라고 성화를 바친다면 더 못하게 된다는 의미를 암시한다. 衆人의 온갖 열성과 요구 기대를 어떻게 소화하여 紀念館 속에 투입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일을 생각한다면 設計·企劃하는 사람의 力量을 운위하기에 앞서 아예 주눅이 들지 않도록 두둑한 鬮심부터 길러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한다. 부어 넣으려는 요구사항이 너무 많이 와닿지 않은가 하는 점이다.



따져보면 獨立紀念館도 하나의 建築物이다. 건축가의 日常에서 처럼 잘하는 사람이 그가 하던대로 잘하면 되는 것인지 모른다. 하나의 건축물로서의 설계과정과 특별히 다를리 없다는 뜻이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하는 이런 이야기조차 찬사요 군더더기가 될는지 모르지만 좀더 차분한 마음으로 日常의 設計로 돌아가는 것이 어찌면 좋은 결과를 낼지라도 모르겠다는 인상마저 들게 한다. 이것이야 말로 건축인의 본모습을 보여 줄 절호의 찬스, 檀君이래 처음 갖는 기회라는 強迫觀念이 우리로 하여금 전에 없던 용기를 부리게 한다거나 어떤 雜多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욕심을 부리게 한다 면 평상시보다 못한 결과가 없으리라는 보장도 없다. 몇몇 외국의 예를 보면서 그러한 感想에 사로잡히게 된다.

□ 主題表現의 가능성에 대하여

音樂·文學·美術 등은 그 자신을

위한 藝術世界의 具現이 가능한 모양이다. 이를테면 音樂을 위한 음악이라든가, 文學을 위한 문학, 또는 美術을 위한 미술이라고 말하는 경우다. 소위 대중가요나 대중문학과 같이 불리우고 읽히기만을 위한 경우도 있겠으나 그 자신의 藝術世界만을 위하여 創作되는, 이른바 絶對音樂이라든가 純粹文藝, 일련의 抽象·前衛美術같은 것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에 비하여 建築의 경우는 일단 使用目的을 지닌 이상 건축만을 위한 建築이란 생각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건물과 함께 이루어지는 생활을 빼어 내고서 이야기되는 建築物의 이미지·內容·哲學·思惟 등은 도대체 無意味한 것이 되어 버리고 만다. 그것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생활이라는 것조차 한치도 빼어 낼 수 없음을 느끼게 된다. 생활이 없어지는 순간 그것은 이미 건축물이 아닌 工作物이나 콘크리트 塊體와 진배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이러한 것에 의하지 않고서도 건물에 意味를 붙여 넣을 수 있다면 內容으로서의 생활을 도려내었을 때도 그 意味가 남아 있어야 하는데, 生活이 遊離된 유행의 집으로서의 콘크리트 塊體에서 그런 의미가 어떻게 탄생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건축물에 어떤 思惟를 붙여 넣고자 할 때는 쓰임새로나 생활의 일부로서 體得될 수 있도록 하는 외에도 달리 더 좋은 방법이 없음을 느끼게 된다.

요컨대 外樣이나 構造·材料·규모·조형감·비용만에 의지하여서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形而上學的인 면이나 갖가지 哲學을 다 表出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다.

우리는 간혹 建築에 있어서의 象徵性을 생각하게 된다. 이를테면 勝戰紀念館과 같은 경우는 평면·입면·볼륨·창호문양 등에 <V>字를 사용함으로써 그런 意味를 지니게 한다던가, 圖書館은 책 모양으로 집을 짓는다는가 하는 착상에 얽매일 수도 있겠다. 그러나 建築物이 생활과 관련하여 갖게 되는 큰 意味를 건드리지 않고서는 변죽만 울리는 결과가 될 것이며 차라리 勝戰紀念館이나 圖書館이라고 크게 써서 걸어두는 것만 못한 일차원적인 着想이 되어 버리고 만다. 그것은 차라리 랜드마크로서의 역할이나 한다고

할까. 구구한 설명에 의하지 않고는 그 事緣을 알 길이 없다.

□안으로부터 뚫리는 새로운 길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 그것이 復古的인가 未來指向的인가 하는 경우를 생각하게 된다. 단 순히 現實에 머무르려 하지 않는다면 이 두 경우에 대하여 서로 가치를 견주어 봄이 우선한 일일른지도 모른다.

어떤 이는 어느 時代, 어느 狀況이건 두개의 相反되는 現象이 混淆되어 존재함을 믿으려 할 것이다. 다른 한편에서는 역사의 進運과 같이 어떤 週期를 지니고 반복되는 자연스러운 歷史現象으로 파악하려 하기도 한다.

그러나 여러 주장이 다 옳다 하더라도 어느 것이 더 좋은 文化現象이나에 대한 정당성을 선뜻 찾을 수도 없는 것 같다. 그럴 것이 이러한 것들이 개인의 취향이나 자기 世界觀, 또는 특정 집단의 관습에 의한 것이라면 간섭의 대상으로 삼는 것마저 불유쾌한 일인지도 모른다. 당신은 고전음악을 듣지 왜 대중가요나 듣느냐는 식이 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일은 선불리 개인의 취향이나 自己世界, 作家의 世界觀만을 우선하여 앞세울 성질은 아니라 생각된다. 가급적 韓國建築文化의 卓越性을 공히 인정받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거니와 世界文化에 대한 공헌에 일익을 다할 수 있도록 名分을 설정할 수 있다면 더욱 더 다행스러운 일일 것이다.

물론 作家의 世界觀이 위의 사항을 다 包容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러한 의미의 世界觀을 지니고 있다 하더라도 建物로서의 디자인과 꼭 一致함을 생각할 수는 없다. 아울러 그러한 世界觀마저도 어느 순간에 뒤엎어 버리고 싶은 人間的인 客氣의 잠재 가능성을 감안한다면 일에 앞서는 노파심도 우리는 아닌 것 같다.

어느 한편에 치우침으로써 우리가 얻는 것은 무엇인가. 경우마다 옳은 것들 뿐이었다. 復古主義者가 祖上의 일을 돌아보았다 하여 그만이 愛國者인 것처럼 稱頌된다던가, 未來主義者가 理想郷을 잘 편다고 해서 아이디어 하다던가, 또는 現實主義者야말로 현실 시점의 狀況을 누구보다 더 잘 파악하

고 있다고 칭찬되는 경우를 흔히 보아 왔다.

文化를 새롭게 수용하거나 형성해 가는 데서 두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주어진 자기 것만을 고수하여 한치도 새로운 것의 침투를 허용하지 않는, 이른바 鎖國主義와 같은 경우가 되겠으며 다른 하나는 모든 것을 개방하여 自由放任함으로써 맹목적으로 수용하거나, 아니면 조금씩 좋다고 생각되는 것만 취사선택하는 개방적·선별적인 형태의 文化形成이다.

우리는 兩者의 결점과 피해를 알고 있다. 우리는 첫번째의 피해자이기도 하며 두번째의 피해자이기도 한 장본인이기 때문이다.

토인비(A. J. TOYNBEE)의 견해는 이러한 점을 수궁하기에 앞서 傾聽하여 불만 하다. 스스로 앞을 보고 있는 줄 알지만 실제로는 옆을 보고 옆사람 흉내를 내는 것, 아무리 잘 되어도 실통치 않으며 잘못되면 서로 맞지 않



는 요소의 不調和한 것, 過去再興의 착상을 현재를 원활히 운영해 가는 일에 종속시키려는 모순 등으로 지적하는 批判的 견해는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피해의 아픔을 새삼스럽게 한다.

이러한 견해를 주목한다면 이들을 초월할 수 있는 새로운 방향에서의 모색의 필요성을 느끼게 한다. 우리는 어느 것에도 치우치지 않는 길, 鎖國的인 것도 復古的인 것도 未來的인 것도 現實主義的인 것도 選別的인 것도 盲目的인 것도 아닌 어떤 다른 길을 생각하게 된다. 그것은 그의 말대로라면 <사도 바울과 같은 길>이다 <뭔가 生命力이 있는 새로운 내부로부터의 다이내믹한 힘이나 創造的인 운동의 출현에 의해 挑戰되는 경우> 이들에 구애받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이 시점에서 獨立紀念館의 個性의 主題를 생각한다면 그러한 拘礙로부

터 벗어난다는 사실만으로도 이 紀念館의 의미를 한층 더 명료하게 부각시키는 효과를 지닐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런 名分이 의도적인 企劃으로 나타난다 하더라도 실제 디자인으로 提示되지 않는 한 우매한 추상적 論理의 오류에 빠져들 위험을 안고 있다. 그러므로 어떠한 前提이건 그것이 정당한 것이라면 이를 충분히 살려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보장되어야 한다.

일을 주관하는 사람이나 激勵·聲援하는 사람과 실제 設計하는 사람의 긴밀한 관계를 새삼 논휘할 것은 아니지만 이를테면 相互間에 大義名分을 저버리지 않도록 협력함으로써 그 관계를 더욱 더 깊은 것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方案과 같은 것이다. 간섭이나 감독이란 지나친 표현이겠지만 적어도 그런 의미를 지닌 관계를 최악의 상태에서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항상 잘하려고 하면서도 한번도 잘한 적이 없는 입장이라면 이런 背水의 각오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뜻을 지니고 태어난 좋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共感할 수 있는 社會文化的 배경은 어떠한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建築物이 文化環境의 產物이라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그 存立의 가능성도 역시 그 母社會 속에서 찾아야 한다. 무엇보다도 질 좋은 文化環境을 토대로 하지 않고서는 설사 좋은 것이 태어난다 하더라도 偏見과 誤謬, 뜻없는 사람들의 無關心 속에 다시 사라져 버릴른지도 모른다.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는 누구나가 한 발자국씩 앞으로 나아갈 필요를 느끼게 된다.

갈수록 점점 산중이다. 캄캄한 가운데 한줄기 빛을 기대하는 것과 같은 막연한 작업일른지도 모른다. 또 실지 그러한 성과를 얻을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그러나 아예 名分을 떠나면 서까지 그 일을 수행해야 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적어도 우리가 가려야 할 일들을 알기만 해도 새로운 도전이라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만은 아닐 것이다.

天然의 眞理, 굳센 生命力을 지닌 眞實된 것, 순수한 創意力, 是非에 얽매이지 않는 超克, 이러한 것들에 관한 우리로부터 成功의 可能性을 결코 앗아갈 것 같지는 않다.